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때려 죽이는 **타살**(打殺), **구살**(毆殺), 주먹으로 쳐죽이는 **박살**(搏殺),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박살**(撲殺), **격살**(擊殺), 쏘아죽이는 **사살**(射殺), **총살**(銃殺), **포살**(砲殺), 칼로 찌르거나 베어 죽이는 **자살**(刺殺), 찢어죽이는 **육살**(戮殺), **육시**(戮屍), 생매장해 죽이는 **갱살**(坑殺), 바퀴로 치어죽이는 **역살**(轢殺), 단근질해 죽이는 **낙살**(烙殺), 밟아죽이는 **답살**(踏殺), 깔아죽이는 **압살**(壓殺), 독을 먹여죽이는 **독살**(毒殺), 껍데기를 벗겨 죽이는 **박살**(剝殺), 끓는 물에 삶아죽이는 **팽살**(烹殺), 불에 태워죽이는 **분살**(焚殺), **소살**(燒殺), 베어죽이는 **참살**(斬殺), 여기서도 머리를 베어죽이는 **참수**(斬首), 허리를 끊어죽이는 **요참**(腰斬)이 있다. 또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익살**(溺殺), **수장**(水葬), 잡아죽이는 **포살**(捕殺), 굶겨죽이는 **아살**(餓殺), 목 졸라 죽이는 **교살**(絞殺), **액살**(縊殺), 채찍질하여 때려죽이는 **추살**(捶殺), 철퇴로 쳐죽이는 **추살**(鎚殺), 몽둥이로 쳐죽이는 **추살**(椎殺), 발로 차죽이는 **축살**(蹴殺), 높은 데서 내던져 죽이는 **척살**(擲殺), 곤장으로 때려죽이는 **장살**(杖殺), 폭탄을 터뜨려 죽이는 **폭살**(爆殺), 기둥에 묶고 창으로 찔러죽이는 **책살**(磔殺), 꺾어내어 죽이는 **유살**(誘殺), 죽일 사람이 없을 때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대신 죽이는 **대살**(代殺) 등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사람 죽이는 방법이 모두 동원된 것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현실이었다.

죽이는 이야기

한홍구의 대한민국 史 2 121-122쪽

- 전쟁 이전 학살 : 6.25전쟁 이전 제주도과 여수 · 순천 지역, 지리산 중심의 '작은 전쟁' 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주로 군경 토벌대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집단살해당한 사건
- 군경에 의한 예비검속자 및 형무소 재소자 학살 : 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예비검속자, 형무소 재소자들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 처형당한 사건
- 미군 폭격에 의한 학살 : 유엔군(95% 이상이 미군) 참전 후 미군의 공중 폭격 등으로 피난민 등이 집단살해된 사건
- 점령기 인민군 등에 의한 학살 : 인민군 점령 직후와 후퇴 직전에 인민군과 지방좌익에 의해 우익인사들이 학살당한 사건
- 부역혐의 학살 : 주로 9.28수복 직후와 1.4후퇴기에 군경과 우익 치안대에 의해 인민군 점령지에 남아 있던 민간인들이 불법으로 집단살해된 사건
- 토벌작전 중 군경에 의한 학살 : 전선이 북상한 후 제2전선이 형성된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일대 등지에서 군경 토벌대에 의해 민간인 이 집단살해당한 사건

민간인 학살의 유형

- 그러고서는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이른바 '도강파-잔류파' 논쟁을 벌인다.
서울 수복 후, 소수의 '도강파' 는 다수의 '잔류파' 에게 부역혐의를 씌우고 압박했다.
이에 잔류파는 전황을 거짓 선전하고 한강 다리를 끊어 피난길을 막은 채 자기네만 빠져나간 정부가 오히려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서울에 입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으나, '도강파는 애국자, 잔류파는 부역자'라는 마타도어가 득세하면서 대대적인 부역자 처벌 및 약탈이 자행된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전국에 걸쳐 부역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대대적인 불법학살을 조장하고 부추겼던 것이다

부역혐의 학살의 슬픔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고 29일 정오 중앙청 광장에서 '환도식'이 열렸다. 군악대도 의장대도 없어 매우 초라했지만 모두들 뜨거운 감격을 억누르긴 어려웠다. 먼저 연단에 오른 맥아더는 "대통령 각하! 저와 저의 장교 일동은 이 순간부터 군무(軍務)에 전념하고, 민사(民事)에 관한 모든 것은 각하와 각하의 정부에 맡깁니다!" 라고 선언했다. 이승만은 너무 감격해 "우리는 장군을 숭배합니다. 우리 민족의 구원자로서 장군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수복의 감격은 잠시였고, 많은 시민들은 쓰디쓴 환멸을 맛보아야 했다. 피난을 갔던 '도강파'는 개선장군처럼 당당했고, 정부의 말을 믿고 서울에 남은 '잔류파'는 빨갱이, 불순분자, 부역자라는 의혹을 받으며 검증을 통과해야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중략)

해방정국에서부터 이스만을 꿈쩍이 따르던 모윤숙의 다음과 같은 항변이 민심을 대변했을 것이다.

"9월 30일인데 경무대에 가서 이박사를 만났습니다. 어찌나 분한 생각이 가슴에 북받치던지 곧장 달려들어 넥타이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할아버지 도대체 나를 부려먹고 막판에는 방송을 시키고 혼자만 살려고 피난 가기에요" 라고 बारबार 악을 썼어요.

적반하장:도강파와 잔류파

- 3.1운동 이후 보통학교가 3면 1교 더 나아가서는 1면 1교식으로 서서히 증설되면서 농촌마을 평민들도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 신교육을 받게 함
- 신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성년이 되고 마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1930년대 이후 평민층과 양반층이 신분 문제로 잦은 충돌을 벌임
- 해방을 전후하여 신분의식은 좀 더 큰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한국전쟁 발발. 인민군의 진주는 신분제하에서 억눌리면서 갖은 핍박과 설움을 당해오던 이들에게는 신분제를 전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받아들여짐
- 평민층과 천민층 가운데 원한을 품고 있던 이들은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고 보고 양반층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마을로 간 한국전쟁1

신분 계급간의 갈등(1)

- A마을은 평민마을로 진주강씨들이 많이 살았고 B마을은 양반마을로 풍양조씨의 세력이 대단했다.
- 한국전쟁은 그동안 A와 B 두 마을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50년 인민군이 남하하자 부여군의 경찰도 철수하게 되었는데 이때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하여 낙화암 고란사로 끌고가 처형했다.
- A마을에서 보도연맹원으로 처형된 이들의 가족들은 인민군들이 들어와 인공치하가 되자 보복행위에 나서게 된다. 특히 처형된 청년들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C마을의 이장 조동갑때문에 끌려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마을 청년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인민재판에 부친 뒤 못매를 가하여 살해했다.
- 이후 B마을의 조동을도 경찰 찬조원이었다는 이유로 처형.
- 인민군의 부여 점령 기간은 석달이 채 되지 않아 인민군은 부여에서 철수했고 이른바 지방 좌익들도 그들을 따라 입산하거나 북행길에 오름
- 하지만 경찰은 이 마을을 빨갱이 마을로 지목 조동갑 조동을 사건과 관련하여 13명이 군사재판에 부쳐졌다. 3명 처형 1명 감옥에서 병사 나머지 사람들은 20년형을 언도받은 후 4-5년 뒤에 감형 석방되어 귀가했으나 이미 B마을 사람들이 가재도구를 모두 챙겨감 결국 심적 압박으로 자살한 이도 있음
- A마을 주민들은 점차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등의 B마을에 대한 반감의식 형성 1950년대 A마을 사람들은 국민학교 가을 운동회마다 B마을에 저서는 안된다고 가르쳤으며 심지어 외부 태권도 사범을 초빙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함 하지만 A마을 아이들이 성장했을때 그들은 연좌제의 장애물에 막히고 말았음

예시 부여.

- 당진군 합덕면은 이렇다 할 양반 동족마을은 없었고 따라서 신분간의 갈등은 특별히 없었다. 그러나 재지주와 부재지주의 마름들이 각 마을에서 큰 영향을 행사했고 결국 이들과 소작농 간에 갈등이 빚어졌다.
- A마을의 주민들이 이웃한 B마을의 재지주를 습격함. A마을에는 지주의 대리인인 마름은 있었지만 지주는 없었다. 이곳에 토지를 소유한 지주는 대부분 서울에 살고 있었다. 따라서 A마을의 주민들은 지주로부터 통제를 덜 받았고, 대신 마을의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 반면에 B마을에는 재지주가 있었다. 재지주와 함께 살고 있던 소작인들은 여전히 지주의 영향하에 놓여 있었고 이들은 지주를 보호하기 위해 A마을의 소작인.머슴들과 싸웠다
- 결국 A마을 주민들의 습격은 실패로 돌아갔고 인민군이 물러간 뒤 A마을의 소작인과 머슴들은 큰 곤욕을 치렀다.

마을로 간 한국전쟁1

신분 계급간의 갈등[2]

- 진도 동쪽마을 X리 사례
- X리의 현풍 곽씨는 이름만 양반가일뿐 마을에서 세력가의 성씨에 끼지 못함
- 이들 중 중파에는 좌익으로 간 이들이 많았고 계파에는 우익으로 간 이들이 많았다. 경제적으로는 중파가 더 부유했지만 중파의 핵심인물이 사회주의자로서 좌익으로 가는 바람에 중파의 젊은 청년들 가운데는 좌익으로 기운 이들이 많았다.
- 반면 계파는 그 핵심인물이 해방 후 경찰에 들어가는 바람에 우익으로 간 이들이 많았다. 그리고 1946년경부터 1950년까지 좌파청년들은 중파의 핵심 인물이 마을을 떠난 뒤에 중심을 잃고 우파 청년들에게 눌러 갖은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 이러한 갈등관계는 한국전쟁 초기 경찰이 이 마을의 보도연맹원 5명을 학살하고 떠난 뒤 폭발했다. 보도연맹원 유가족들은 인민군들을 앞세워 보복했다. 후에 경찰이 들어온 뒤 좌파에 대한 우파의 보복이 일어났다.
- 결국 좌익측에 의해 희생된 이가 110명 입산한 이들이 37명 입산자 가족으로 경팔과 우익에 의해 희생된 이가 20명 모두 167명이 사망

마을로 간 한국전쟁 2

친족 마을 간의 갈등

- 여기서 종교는 주로 기독교였고 이념은 공산주의자였다.
- 인민군과 토착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는 관점. 그리고 기독교는 우익 편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도들을 숙청의 대상으로 간주했고 이것이 마을 주민들간의 갈등을 불러옴
- 당진 합덕면 H마을은 천주교 신자 마을로 서울 천주교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합덕면 일대 대규모 토지를 사들였다 합덕성당은 성당 바로 앞의 H마을에 농민들을 모아 교회의 땅을 소작시키면서 집까지 제공 대신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 했다.
- 해방 후 인근 X마을 주민들은 H마을을 우익마을로 간주 인민군 철수 시 H마을을 습격하여 주민 8명을 끌고 가 처형 9.28 수복 이후 경찰이 진주하자 이번에는 H마을에서 X마을을 포위하고 주민들 대부분을 끌어나 징치
- 전남 영광군 같은 경우는 당시 인구가 16만명이었는데 2만 5000-2만 5000명이 희생(개신교 마을이 많았기에)

마을로 간 한국전쟁 2

종교와 이념간의 갈등

- 1948년 초 미군정, 그리고 미군정이 밀던 이승만 세력이 남한만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면서 남한 각지에서 단선단정 반대투쟁이 일어난다.(당시 5.10 총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사회단체의 비율이 10퍼센트도 안되었다. 참고로 당시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 계열을 지지하는 비율은 80%에 육박했다)
- 그런데도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은 남한만의 단선단정을 밀어붙였고, 그것은 곧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즉,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에 국민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2.8 투쟁, 제주 4.3 투쟁 등이 그 반영이었고, 5.10 선거, 8.15 정부 수립 이후까지 계속된 제주 항쟁, 뒤이은 여순 항쟁이 그 속편이었으며, 8.15에 들어선 이승만 정부는 국민의 저항에 무자비한 진압과 민간인학살로 대응했다. 이후 국민적 저항의 중심은 평지를 떠나 산으로 진지를 옮겼고, 전쟁이 나기도 전에 이미 '작은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작은 전쟁'의 평지판, 도시판은 파업과 쟁의, 폭력과 테러와 암살이었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민간인이 학살당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 이승만 정부는 국민들의 저항을 누르고자 1948년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1949년에는 친일파 청산기구인 반민특위를 공격하고, 좌익 활동 전력이 있는 이들을 밝은 길로 인도한다는 명분하에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하고, 각종 우익 청년단체를 대한청년단으로 통합하여 준군사조직으로 만들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나

- 학살 이후 유족들의 삶

- 학살 이후 유족들의 반백 년 삶은 실로 형언하기 힘들다.

애비 없는 설움에 '빨갱이 가족' 이라는 손가락질, 지독한 가난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거미줄처럼 따라다니던 연좌제의 꼬리표는 그나마 힘겨운 삶을 더욱 옥죄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질시를 피해 고향을 등졌고, 그나마 외국에라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고국을 등졌다.

왜 죽었는지 이유라도 알자,

유골이라도 찾아 제사라도 떴듯이 지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은 번번이 압살, 배반당했고, 많은 유족들은 억울하게 죽은 부모형제와 자신의 삶까지도 부정하면서 자신을 거짓 포장하며 살 길을 꾀했다.

살기 위해 군에 입대하여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길도 택했고, 가해자 집단과 어울리며 신분 세탁을 꾀하기도 했다. 대물림을 하지 않으려 자식들에게 사실을 함구하니 가해자 집안과 피해자 집안이 사돈을 맺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끔찍한 악몽을 다시 꾸지 않으려면 그 사실 자체를 잊어야 했다. 도리질치고 떨어내어 덮고 잊어야만 살 수 있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학살이후..

www.Bandicam.co.kr

